

첨삭답안	고려대학교 2013 모의 '사실'	작성자	고려대학교간다 님
------	--------------------	-----	-----------

[문항 1]

문학과 언론 보도에서 객관적 사실의 역할은 보조적이다. 제시문 2와 같이 문학이 추구하는 것은 비록 허구일지라도 진실성이 담긴 작품을 통하여 독자의 감수성과 소통하는 일이다. 제시문 3과 같은 언론 보도는 언뜻 보면 완벽한 과학적 객관성만을 추구하는 것처럼 비추어지지만, 보다 총체적인 보도를 위하여 해석 공동체의 이해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

문학과 사실의 관계는 카가 말한 역사가와 사실의 관계와 비슷하다. 1. **문학가는 사실에 기초한 글로 세상과 소통한다는 점에서 역사가의 성격을 갖는다.** 문학가의 작품에 담긴 진실성은 독자에게 삶의 감동을 준다. 그러한 반응 자체가 또 다른 사실이 됨으로 카가 말한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유사하다.

언론 보도는 기본적으로 랑케의 객관적 서술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그렇지만 보도 집단과 보도 대상의 관점이 다를 경우 사건의 올바른 진실을 찾기 위해 해석 공동체의 추가적인 이해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는 완벽한 객관을 부정하는 콜링우드의 관점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관점이지만, 지나친 주관성 개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기 때문에 카의 관점과도 연관된다. 2. **결국 언론 보도에서 사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만 보다 총체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3. 과학적 객관성을 추구한다고 말하는 역사가, 언론인, 문학가가 있다면 그러한 객관성 역시 자신들의 주관적 의견에 불과하다. 그리고 때로는 사실을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창작물을 낳는 것이 단순 사실의 나열보다 효과가 크다. 현대 사회의 정보 과다는 완벽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다. 따라서 개인의 가치에 의해 사실이 재구성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자연적이다. 다만 사회에 유통되는 의도적이고 편파적인 편견을 걸러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첨삭 포인트]

1. 문학 자체는 허구입니다, 다만 이 의미가 현실성을 지니기에 카와 같은 견해로 해석 가능합니다.
2. 제시문에 따르면, 해석 공동체는 객관적 사실 그 자체에 우선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은 제시문과 어긋날 수 있으며, 역사가들의 견해 중 카의 입장과 연결됨은 좋으나, 카는 사실과 역사가의 해석을 동등한 관계로 바라보았다면 언론 보도에선 해석 공동체를 우선하기 때문에 완전한 동치는 아니라는 점을 서술해주셨어야 합니다.
3. 마지막 문단은 문단 전체에 대한 첨삭입니다. 쓰신 답안에 따르면, 주관적 의견에 불가하나, 때로는 주관적 해석이 좋다. 객관성이 없으니 주관적 해석이 당연하다. 그러나 주관적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주장이 일관적이지 않고 계속 변합니다. 논리의 일관성이 없어 큰 감점으로 보입니다.

B0

총평	전체적으로 좋은 형식이나, 내용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으며 특히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는 부분에선 큰 감점요소가 존재합니다.
----	--

사전협의 없는 무단 도용,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환 논술 (煥 論 述)